



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영향



2019. 7.

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영향

□ 일본 정부 수출규제 개요

- 일본 정부는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 등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식화('19.7.1)
 - * (수출규제 대상 품목)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포토레지스트, 에칭가스
- 수출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폐지, 허가신청과 심사까지 90일 정도 소요될 전망

□ 수출규제 품목 현황 및 영향을 미치는 산업

구분	용도	對日 수입의존도	영향 산업
플루오린 폴리이미드	OLED 패널 제조에 활용되는 필름	93.7%	모바일(폴더블 스마트폰), 디스플레이 등
포토레지스트	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	91.9%	디스플레이, 반도체 등
에칭가스	반도체 등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	43.9%	디스플레이, 반도체 등

□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

수출규제 품목은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의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로 현재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관련 기업에 심각한 영향 예상

○ 단·장기별 영향

- (단기) 90일 이상 수입이 중단될 경우 지역 모바일·디스플레이·반도체 생산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
 - * 개별기업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재고는 2~3개월 이내(대기업 기준)
- (장기) 수출규제 품목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가 없고, 국산화가 추진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어 부정적 영향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* 다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지역내 생산업체가 존재, 긍정적 측면 존재

○ 지역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 영향

- 대기업

구분	영향
플루오린 폴리이미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시 예정인 갤럭시 폴드에 스미토모(日)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, 수출규제 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여 타격이 예상 * 장기적으로는 공급선(코오롱인더스트리) 변화가 가능하며, 이 경우 지역 소재업체에는 호재로 작용
포토레지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올해말 롤러블 OLED TV 출시 계획이나, LG화학에서 공급하는 투명PI(일본 공급원료 아님) 사용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에칭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부분의 물량을 일본에서 공급받아 그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 * 특히 국내 생산품의 경우 품질이 낮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

- 중소기업

구분	영향
플루오린 폴리이미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사용되는 폴더블 스마트폰, OLED 디스플레이 등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(위탁)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
포토레지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본으로의 수입이 곤란,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져 관련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에칭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산품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소재변경에 따른 최적화 및 문제점 점검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부정적 영향 지속 예상